

청년 박지원 변호사 민주당 첫 평당원 최고위원

115명 후보 중 최총 1위 사실상 선출
시민단체·체육회 등 폭넓은 경력
‘당원주권 정당’ 향한 첫걸음’ 의미

〈속보〉박지원(변호사) 전주시체육회장
이 평당원 지명직 최고위원 후보에 최종
선출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공약이었던 평당원 출신 지명직 최
고위원 선거와 관련, 장경태 평당원 최고
위원 선출 준비단장은 “최종 후보 4인 중
전 당원 투표로 실시한 결선에서 박지원
후보가 1위를 했다”고 밝혔다.

총 115명 후보 가운데 선출된 것으로 사
실상 민주당 1호 평당원 최고위원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만 38세인 박 후보는 전주에서 시민단체
자문 변호사, 전주시체육회장, 전북바독협
회장(전) 등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
으며 자립형사립고인 전주 상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수능 전국수석을 차지
한 수재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직후 정청래 당 대표
공약대로 평당원 최고위원 선출 절차에
돌입해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권리당원
총 112만명 중 13만 6000명이 참여한 가



박지원 변호사

운데 당원투표를 진
행했다.

장경태 국회의원은 “사상 최초 평당
원 출신 지명직 최
고위원은 당원 주권
정당으로 향하는 첫
걸음으로 배심원 투
표와 권리당원 투표

를 통해 4인을 최종
선출했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 1인이 선정
됐다”며 당원주권시대의 토대가 열렸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12일 최고위원회의의 보고 뒤
15일께 당무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안
다”며 “당무위에서 인준이 되면 임기가 시
작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임기는 지명 직후부터 당대표 임기와 일
치할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원주권 정
당을 실현하기 위해 평당원 최고위원 선
출을 제안한 바 있는데 당시 정 대표는
“평당원도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는 민주
주의 진리가 실현되면 우리 사회에 큰 변
화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수소차 폐연료전지, 고부가가치 산업자원으로”

전북도와 완주군은 11일 완주 테크노밸리2산업단지에서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 특화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완주군>

전북, AI·데이터 기반 신산업 생태계 구축

농생명·모빌리티 AI 접목 추진
디지털 인프라 확대·인재 양성
홀로그램·양자 실증·사업화 가속

전북특별자치도가 AI와 데이터 기반
산업 전환을 통한 신산업 생태계 구축
에 나선다.

11일 도는 생성형 AI 시대 도래에 발
맞춰 ▲AI·데이터 산업 육성 전략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농생명, 모빌리
티 등 주력산업과 AI 결합 ▲AI 디지
털 전문인재 양성 등 3개 분야를 육성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AI·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조례를 제
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발족을 준비
중이다. 전북연구원과 협력을 통해 전
북 AI산업 육성방향 연구를 2025년 하
반기까지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해 진
행할 예정이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디지털혁신
협의체 산하 7개 전문분과를 중심으
로 기업, 기관,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해 주력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AI 접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에는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 5
곳, 데이터안심구역, 가평정보 결합 지
원센터 등 6개 분야 10곳의 핵심 디지
털 인프라가 소재 운영되고 있다. 향
후, 공공클라우드 데이터센터, SK 데
이터센터 유치와 정보보호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망을 확대
해 나간다.

농생명 분야는 2028년까지 총 1,800
억 원 규모의 ‘AI기반 농생명 3대 사
업’을 추진한다. 농식품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AI지능형 농업생태계
구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을 통
해 개인맞춤형 식품제조부터 원격자
작업, 자율주행, 농작업 실증까지 미래
스마트농생명 모델을 구현한다.

모빌리티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 제
조공정 피지컬 AI 핵심기술 개발·실
증(국비 229억원 등)을 통해 협업업
지 피지컬 AI 전략을 수립하고, 이차전지
기업의 제조공정 불안정성을 AI 기술
로 해결을 지원하는 지역자율형 디지
털혁신 프로젝트(27억원)를 추진 중에
있다.

홀로그램 산업은 익산을 중심으로
2026년까지 총 937억 원을 투입한다.
1단계로 홀로그램 핵심 기술개발, 콘
텐츠 서비스센터 등을 완료하고, 2단
계로 사업화 실증지원, 시제품개발 등
사업화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
반기에는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지
정 공모에 적극 대응해 기존 홀로그램
산업의 확장을 도모한다.

양자 분야는 전북대-한솔케미칼 컨
소사업이 국가 첫 공모사업에 선정돼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사업(28억
원)을 통한 에너지 하베스팅 원리를
실증한다.

전북도는 학생, 재직자, 일반인 등

전 도민을 대상으로 IT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실시 중이다. 올해 하
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IT 취업 희
망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최고위
전문교육 과정(3억원)을 개설한다.

전북도는 AI 디지털 기술 확보,
인프라를 확대하고 매년 수천명의
IT 전문인재를 양성하여 대한민국
스마트농생명의 중심지, AI 기반 모
빌리티 공정 최적화 등을 통해 신
산업 기반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김관영 지사, 전북 미래동력 확보 중앙부처 건의 활동 ‘총력’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일부터 11
일까지 이틀 간 중앙부처 장관들을
만나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
기 위한 건의 활동을 펼쳤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여러 부처의 장
관급 인사들이 연이어 전북을 방문
하는 등 전북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
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김 지사
의 활동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역 발
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전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
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예산
반영 등을 호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전과 5범’ 논란 한희경 관장 사임

도서울장학숙관장 임명 열흘만에
결격사유 아니냐 도덕적 책임 못매

〈속보〉음주운전 등 전과5범 서울장학
숙 관장이 결국 사임했다.

음주운전 등 전과 이력으로 논란을 빚
은 전북도 서울장학숙 한희경 관장이
지난 1일 임명된 지 10일 만에 물러났
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한 관장은
전날 저녁 임명기관이자 채용절차를 진
행한 전북평생교육정책진흥원에 사직
서를 제출했다.

한 관장은 사직서에서 “도민 정서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며 지역사회와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었으나 안타
깝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 당직자이자 도의
원을 지낸 한 관장은 1일 서울장학숙 관
장으로 임명됐지만, 음주운전 3회와 무
면허 운전 1회, 공직선거법 위반 1회 등
전과 5범의 전력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해당 전과는 12~13년
전의 일로 법적 결격사유는 아니지만
학생들을 맡는다는 도덕적 책임론 등이
뒤따랐다.

전북도는 임용 과정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한 가운데 향후 인사에 보
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
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적신평’

법원, 새만금신항개발 취소 판결
시민 1천300명 소송 제기 반영
“조류충돌·환경영향 검토 미흡”

법원이 기본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파괴 등을 제대로 검토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
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1일 국민소송
단 1천300여명이 낸 새만금 신공항 개발
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취소 소송 선고에서
원고의 손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
건 타당성 평가에서 공항 입지 선정 절차
를 거쳐 사업부지를 선정했지만 후보지들
의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전
제한 뒤 “관계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

제시한 기준 등에 따르면 이를 면밀히 평
가하고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업부지는 현재 염습지 상태로 천
연기념물은 물론 멸종위기 생물이 다수 서
식하고 있고, 부지에서 7km 떨어진 충남 서
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
정되어 있다”며 “야생생물을 보호토록 규
정한 법령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 내용 등을 살펴볼때 피고는 이번 사
업이 부지와 갯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더
면밀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신공항은 오는 2028년 완공
을 목표로 새만금 일원 340만㎡ 부지에 활
주로, 여객,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으
로 지난 2019년 사전 타당성 평가가 진행
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던 2022
년 6월께 시민들이 개발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장정철 기자



완주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인증센터 ‘첫 삽’

250억 투입 2028년 완공 목표
폐연료전지 산업자원으로 전환
수소 생산-재활용 전주기 구축

전북도는 완주 테크노밸리2산업단지에서 국내 최초로 조성되는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기공식은 급격히 확대되는 수소차 보급에 따른 환경·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수소 순환경제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의의가 있다.

행사에는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 윤희태 완주군수, 윤수봉 전북도의원, 권현철 산업부 수소산업과장,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현대차 전주공장, 지역 대학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센터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주관해 총 250억 원(국비 100억 원, 도비 45억 원, 군비 45억 원, 민간 60억 원)이 투입되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공 후에는 △폐연료전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기술 실증 △국내외 표준화 △안전 시험·인증 △기업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 이후에는 2018년부터 보급된 수소차의 내구연한이 도래해 폐연료전지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할 선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폐기물로 방치되던 연료전지를 고부가가치 산업자원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산업 구조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완주는 이미 수소생산기지,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수소 상용차,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소재 기업 등 핵심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이다. 이번 센터가 들어 서면 수소 생산-활용-재활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주기 생태계가 완성되



전북도는 완주군 테크노밸리2산단에 국내 최초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 시험인증센터 기공식을 11일 개최했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전북도>

어, 시험·인증 서비스와 기술지원 기능을 더해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에도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

는 “이번 센터는 단순한 연구시설을 넘어 수소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실현을 앞당길 전략 거점이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이재명 정부 100일, 대한민국 바로 서고 있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의 논평

“민주주의·경제 회복 100일
‘모두의 성장’ 사회로 나아가야”

더민주전북혁신회의(상임대표 조지훈 박지원)는 11일 논평을 내고 “국민주권 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있다”고 운을 뗀 뒤 “대한국민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계엄을 진압했고 길었던 탄핵과 파면 정국의 결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가 만들어 졌다”고 밝혔다.

더민주전북혁신회의는 “이재명 정부 100일을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위한 회복의 100일·글로벌 강국을 위한 회복의 100일·글로벌 강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성장화의 100일로 규정하고 내란 세력 척결! 민주공화국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전북 도민과 혁신회의의 투쟁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대한민국 회복과 성장화, 더 큰 도약을 위해 힘 없이 달

려왔다”고 주장했다.

또 “내란 특검을 필두로 3대 특검을 임명해 민주주의 파괴와 권력 사유화 음모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경과 소비 쿠폰을 투입해 겨져가던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렸다”며 “AI 3대 강국·세계 5강의 비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립하고 미일 순방과 정상외교로 경제·안보 동맹을 공고히 하고 관세 전쟁이 불러온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도 중요한 성과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제 국민주권 정부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고 이대통령의 정치철학이자 이상인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대동 세상을 위한 도태가 마멸될 것이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장정철 기자

진안 데미샘품그린농장, 농식품부 ‘방목생태축산농장’ 선정

1억 지원초지·울타리 조성
산양·한우 방목 사육 친환경 축산
전북 총 4곳, 관리 체계 강화 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심사에서 진안군 데미샘품그린농장이 신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전국 59개군 가운데 4개소의 방목생태축산농장을 운영하게 됐다. 데미샘품그린 농장(대표 황양우)은 진안군 백운면 임야와 초지 약 7만 평에서 산양 130두와 한우 13두를 방목 사육하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2026년 사업비 1억 원(기금 5천만 원, 시군비 2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울타리 설치와 초지 조성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은 유휴산지·농지 등을 초지로 활용해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방식으로, 친환경·동물복지 축산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모델 확산을 목표로 한다. 이는 축사 중심의 일반 사육과 달리 넓은 초지에서 가축을 자유롭게 키워 환경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현재 전북도에는 이번에 지정된 진안 데미샘품그린을 포함해 ▲정읍 다움농장(한우 250두) ▲순창 하안산양목장(산양 20두) ▲장수 언덕위산양목장(산양 18두) 등 총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신규 지정을 계기로 방목생태축산농장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정 농장에는 현판 설치와 보조금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와 사후 관리도 이어진다.

이를 통해 농가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지역 환경 보전과 공동



도는 농식품부 2026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심사에서 진안군 데미샘품그린농장이 신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전북도>

체 활성화,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신규 지정을 계기로 도내 친환경·동물복지 축산 기반이 한

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방목생태축산농장을 적극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도의회 기획행정위, 출연기관 경영평가 보고 거부

“개선 약속 말 뿐 매년 문제 반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1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총괄 경영평가 보고를 받은 후, 경영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별 경영평가 보고를 거부했다.

위원회는 이번 경영평가가 행정안전부 제안모델 미반영, 상위등급 풀림 현상에 따른 신뢰성 저하, 지표 선정·측

정의 타당성 부족 등 각종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특히 위원회가 지적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매년 동일 제기됨을 지적하고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영평가의 공공기관의 사업성과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로 이를 통해 기관 역량을 제고하고 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 체계 쇄신을 마련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2025 글로벌 동물헬스케어 포럼 개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목표

전북자치도와 익산시, 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이 공동으로 글로벌 동물헬스케어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전북도는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150여 명이 참여하는 2025 글로벌 동물헬스케어 포럼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최근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가 시험실시기관 3개 분야 인증을 획득하고,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성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열린다.

전북도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1,150억 원을 투입해 익산을 중심으로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이번 인증으로 국내최고 수준의 시

험·평가 역량을 확보했다.

국내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한 통찰, 전략과 협력체계 구축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동물약품협회 등 주요 기관과 기업이 참여해 강연, 토론,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진행한다.

첫째 날은 ‘국내외 동물헬스케어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과 ‘국내 선도기업들의 도전 과제’를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동물용 백신 플랫폼 기술의 현재와 미래 전망’에 대해 집중 논의된다.

전북도는 이번 포럼을 통해 산·학·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구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연계되는 통합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동물용의약품 연구 기업 유치 및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정철 기자

각 부처 장관 면담…전북 현안 정부 지원 건의

국가예산 반영·예타통과 위해
산업·중기부장관 경제부총리 면담
새만금·수소 등 핵심 현안 요청

<1면에서 이어서>

또▲완주 수소상용모빌리티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으며,▲특수목적선 MRO 특화단지 구축 등 지역 산업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11일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면담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모 선정과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같은 날,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만나 주요 정부안에 미반영된 국가예산 사업에 대한 국회단계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

주요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등을 건의했으며,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특히 10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타 통과가 반드시 필요함을 중점 설득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의 국정동력이 강한 초기에 중앙부처와 밀착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릴레이 면담을 통해 전북의 절박한 현안을 직접 전달하고, 국가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국회 상임위와 연결위 단계별 심사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고,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선정 등 총력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정철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수칙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서행운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전국기업 1000대 기업’ 분석 전북기업 12위

전북상협 매출액 분석 결과 발표 수도권 73.9% 기업분포 ‘심화’ 여전

전북상공회의소의협의회가 '24년 매출액 기준한 전국 1000대 기업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상협은 ‘24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전북지역 기업현황’ 분석을 통해 “전북지역 기업은 '23년 8개사에서 '24년 10개사로 2개사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북기업 중 1000대 기업에 포함된 총 매출액은 기업 수 증가에 따른 9조359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반면 '24년 매출액 9.8% 수치는 전국 1000대 기업 총매출액 비례 0.28%에 그친 수치로서, 전북도내 기업 산업기반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의협회장은 “전북도 기업현황은 전국 17개 시도별 순위도에서 2계단 상승한 12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서 전국 1000대 기업 중 전북지역에 분사를 둔 기업은 10개사로 집계됐다.

소재지별 매출액 분포는 전주 4개사, 익산·군산 각각 2개사, 완주·부안 각각 1개사로 나타났다.

10대 기업 업종별로는 금융업이 3개사로 가장 많았고, 식품 및 화학 관련 제조업 각 1개사로 조사됐다.

지역 대표 금융기관 (주)JB금융지주는 국내의 시장 수익모델 확대와 자회사들의 안정적 성장에 힘입어 전국 순위가 1543위에서 972위로 571 계단 상승하며 처음으로 1000대 기업에 진입했다. 지난해 순위에서 제외됐던 (주)세아씨엠과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도 재진입에 성공하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상협은 이번 조사 분석에서 “국내 1000대 기업의 73.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심각한 지역 불균형은 여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전국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영남권 (14.9%), 충청권(6.7%), 전라권(3.5%) 순

[2024년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전북기업 현황]					
전북 순위	전국 순위	기업명	소재지	주업종	
1	279	동우화인켐(주)	익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2	371	(주)전북은행	전주	금융업	
3	434	(주)하림	익산	식품품 제조업	
4	471	케이비우리카피탈(주)	전주	금융업	
5	514	타타대우모빌리티(주)	군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	895	(주)전주페이퍼	전주	종이제품 제조업	
7	903	(주)참프레	부안	식품품 제조업	
8	972	(주)JB금융지주	전주	금융업	
9	979	(주)세아씨엠	군산	도금 착색 및 기타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10	996	미원스페셜티케미칼(주)	완주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전북상공회의소의협의회가 '24년 매출액 기준한 전국 1000대 기업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으로 기업이 분포해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 격차 심화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김정태 전북상협 회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북의 1000대 기업 수가 늘어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지만 전통 제조업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 취약성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우리 전북 경제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위해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동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선도기업 유치와 전략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상공회의소의협의회는 '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김제' 등 전북 5개 상공회의소가 모인 협의체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6천억원 규모 AI·딥테크 펀드 조성

모태펀드 추가 선정 완료 “AI 유니콘 육성 민간 호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11일 2025년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 사업의 운용사 선정을 마쳤다.

6.5:1의 경쟁률을 보였던 이번 출자사업에서는 모태펀드가 3100억원을 출자해 15개 펀드 6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선정된 펀드는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해, 올해 안에 결성 완료 및 투자 개시를 목표로 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정시 출자사업의 핵심은

NEXT UNICORN Project로, 글로벌 AI·딥테크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유망 벤처·스타트업이 창업 단계에서 스케일업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대규모 집중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창업초기 소형 펀드도 함께 조성하여, 초기투자 활성화를 통해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AI·딥테크 분야 전문기술인력 창업기업 대상으로 초기 투자를 지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스타트업 펀드'가 9개 펀드, 26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급변하는 딥테크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산업·연구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창업한 유망 스타트업

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또 AI·딥테크 분야 기업에 평균 100억원 이상 스케일업 투자를 지원하는 'NEXT UNICORN Project 스케일업 펀드'가 2개 펀드, 3100억원 규모로 선정됐다.

이 펀드는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공공기관이 우수 성과기업으로 추천한 기업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으로, 정부가 육성한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정부 AI 유니콘 육성 의지에 발맞춰 국내 1호 유니콘 기업인 '쿠팡'에서도 후배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해 이번 'NEXT UNICORN Project 스케일업 펀드'에 대규모로 출자가 나섰다. 쿠팡이 그간 축적한 AI 기술 기반 노하

우를 바탕으로 국내 AI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배 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이다.

이 밖에 '창업초기 소형 펀드'가 4개 펀드, 201억원 규모로 선정되어, AI·딥테크 뿐만 아니라 일반 초기기업에도 투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출자사업 선정 결과는 정부의 AI·딥테크 유니콘 육성 정책에 민간이 적극 호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발굴·지원한 유망 기업이 향후 국가 성장동력을 책임질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 집중호우 피해 농가 ‘농심천심’ 일손돕기

군산 마룡리 일원 농가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11일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일원의 농가를 찾아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날 일손돕기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가리하우스 및 배추시설하우스의 토사 제거, 비닐 정비, 잔해물 처리 등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했다.

피해복구에는 전북농협 임직원과 군산시 공무원 약 5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 6일 군산지역에는 시간당 150mm

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농작물 침수, 시설하우스 파손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농협은 농심천심 운동의 일환으로 피해 농가를 돕는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농협의 존재 이유는 언제나 농업인의 곁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일손돕기는 농심천심 운동의 실천이자, 믿음직한 동반자 전북농협의 약속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전북농협은 도내 각 시·군 지자체 및 지역 농·축협과 긴밀히 협력해 재해 피해 농가의 조기 경영 안정 지원, 일손 부



족 해소,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현장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JB희망의 학습멘토링’ 후원금 2억7천만원 전달

자립준비청년 30명 선발 1:1 아동 학습돌봄 멘토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아동 학습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2025 'JB희망의 학습멘토링' 연간 지원사업 후원금 2억7천만원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전주시 우범기 시장, 전주시복지재단 윤방섭 이사장,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김경환 관장,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오현권 부행장, 조인성 전주시청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JB금융그룹 핵심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학습 돌봄 공백 아동들이 학습지도 및 정서지원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과 역량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자립을 돕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은 전주시, 전주시복지재단,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하여 자립준비청년 30명을 선발해 8개월간 방과 후 1:1 아동 학습돌봄 멘토로 활동하도록 지원하며 학습멘토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이 기간 동안 매월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전주시 우범기 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전북은행과 지역사회가 든든



한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다가가 미래에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기획재정부-임실군,자매결연

기념품 구매시 특산품 활용 등 지역상생소비활성화협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1일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기획재정부, 임실군과 함께 지역상생 소비 활성화를 위한 3자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 중 하나로 공공기관, 정부, 비수도권 지자체 간 '자매결연'을 통해 관광, 특산품 구매 활성화 등 지방 소비 촉진을 목표로 추진됐다.

행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심민 임실군수,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지역 관계자 및 주민들이 함께해 지역이 함께하는 의미를 더했다.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세 기관

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명절선물 및 기념품 구매 시 지역 특산품 활용 △지역 경제·문화·관광 분야 활성화 △지역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와 지식 교류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하여 지속 협력하고, 다양한 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태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상생 자매결연이 관광과 특산품 구매 등 상생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방 살리기'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공단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노사발전재단 전북센터, 중장년 경력 전환 사례 공유

적합 직무 콘서트 개최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소장 이명숙)은 '중장년을 신나게! 중장년 커리어 ON! 적합 직무 콘서트'를 개최한다.

콘서트는 2025년 중장년고용강조조항에 따른 것으로 오는 19일 전주상공회의소 7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중장년층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적합 직무 발굴과 경력 전환 사례공유를 통해 중장년 고용 활성화와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콘서트에는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전북지역 중장년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공단-디캠프, 새싹기업 성장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11일 새싹기업(startup) 지원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디캠프(대표 박영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디캠프는 19개 금융기관이 공동 설립한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전문기관이다.

지금까지 4,500개 이상의 새싹기업을 발굴했으며 780여개 새싹기업에 입주 공간, 창업 교육,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디캠프에 국민연금 사업장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김영태 기자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 제주 워크숍 개최

농심천심 가치 확산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이 육성하는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회장 김미자) 시군회장단 워크숍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삼일강 제주일원에서 농심천심 가치 확산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전북연합회 시군회장단은 이번 워크숍에서 농촌 활성화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방안 등에

대한 열린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 제주지역 선진 농업 사례를 직접 체험하며 농업 미래 발전 방향과 회장단 역량 강화를 모색했다.

농가주부모임전북연합회 김미자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농심을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주부 리더로서 지역사회와 함께 더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들, 선거 ‘전초전’ 돌입

김윤태·오준영·유성동
이남호·천호성 등 참여
교육 단체 선거 개입 우려

내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출마할 유력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 전초전에 입하고 있다.

11일 전북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복한 학부모회 아이디어’ 발대식에 내년 전북교육감 출마에 거론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동선을 보이고 있다.

‘행복한 학부모회 아이디어’는 창립총

회에서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가교 역할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준중반는 교육 문화 확산을 주요 활동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현재 가입 회원 수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출범 초기부터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부모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발대식에는 전북교육감 유력 후보인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와 최근 전북연구원장을 조기 퇴임하며 교육감 출마 의사

를 밝힌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 지난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김윤태 우석대 부총장, 오준영 전북고총 회장, 유성동 좋은교육시민연대 대표 등 5명이 참석했다.

천호성 교수 대항마로 새롭게 떠오른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와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황호진 전 전북교육청 부교육감, 노병섭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 대표는 불참했고, 교육감 출마를 포기하고 교사노조 연맹 회장으로 선취한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예비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

고 있는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조지훈 공동 대표와 전주시장 3번째 도전을 꿈꾸고 있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자리했다.

이남호 원장과 오준영 회장, 유성동 대표를 제외한 예비 후보들은 축사가 끝남과 동시에 자리를 벗어났다.

발대식에 참석한 한 전북 교육계 전문가는 “전북교육감 선거가 8파전으로 치러질 양상에 따라 각 후보들은 물밑에서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바빠 움직이고 있다”며 “최근 교육 관련 단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선거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 AI 기반 학생 역량 강화

설계 능력·창의성·생산성↑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수태)는 재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신 AI 기술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 현장 연계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2학기에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진로·취업 교육’을 집중 시행하며, 학생들이 ChatGPT, Gemini 등 다양한 AI 도구를 통해 취업 준비에 필요한 프롬프트 설계 능력을 기르고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고용노동부 대학생 Gemini Academy’ 교육과 연계해 AI 활용 실무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AI 교육을 넘어 국내 최초 국가공인 인공지능 활용 능력시험인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 자격증 과정반도 운영한다.

도내 우수 기업 현직자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동향과 채용 트렌드를 직접 전달하며, 에너지·소재, 식품·바이오, 첨단소재,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현직 멘토들로부터 직무별 필수 역량과 취업 준비 전략을 공유받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주대 신숙경 학생취업처장은 “AI 기반 첨단 교육과 지역 산업 현장에 필요한 프롬프트 설계 능력 향상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미래 산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우수 중소기업-예비 연구 인력 ‘만남의 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전북
첫 행보 “성장 발판 될 것”

전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과 예비 연구 인력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장이 열렸다.

11일 중기부와 노동부, 전북도가 공동으로 전북대학교에서 ‘중소기업 연구 인력 매칭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 중소기업의 인사 담당자와대표자를 초청해 연구인력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채용에 의한 기업 주도적 선순환적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행사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 상담부스 및 기업설명회를 통한 구직자 및 학

생들의 취업 역량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도를 방문한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양오봉 전북대 총장, 황정호 고용노동 전주지청장 등이 참석했다.

매칭데이는 기업 소개 및 취업노하우 전수를 위한 25개의 상담부스와 구직자 및 졸업예정자에게 현장 면접 및 취업컨설팅도 진행됐고, 취업 트렌드 특강, 기업-구직자 포럼, 대학 및 유관기관 홍보존, 행사 참여자 이벤트 존 등이 운영됐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인력 양성지원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연구인력 매칭기업 및 비매칭기업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인력 채용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기



업의 연구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성숙 장관은 “매칭데이를 통해 전북 지역 청년연구자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

할 기회를 찾고,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동반자를 만나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행사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JB문화관광통신원’ 8명 모집

15일까지 신청·19일 발표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전북 문화·예술·관광 현장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하는 ‘2025 JB문화관광통신원’ 8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선정된 통신원은 전북의 숨은 매력을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모집 방식은 △권역별 모집(동부·서부·남부·중부 각 1명) △자유 모집(4명 내) 두 가지로 진행된다. 권역별 모집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원 가능하며, 자유 모집은 전북 전역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전북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고 월 1회 이상 취재 및 글쓰기가 가능한 사람이다. 재단은 서류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19일 재단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된다.

/장정철 기자

전북현대, K리그1 우승 향해…13일 29라운드 경기

1994 버스 확대 운영
김진규 선수 시상식도

전북현대모터스FC(단장 이도현)가 K리그1 우승을 향해 나간다.

전북현대가 오는 13일 저녁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K리그1 29라운드를 치른다.

지난 5월 27일 대구와의 경기에서 승리 후 1위를 굳게 지키며 K리그1의 여세를 지배한 전북현대가 이제는 우승을 향해 가을 추구를 준비한다.

이번 라운드에서 맞붙는 대전은 현재 리그 3위로 전북현대와 매 경기 치열한

접전을 치르는 팀이다.

올 시즌 두 번의 K리그1 맞대결에서 1승 1무로 전북현대가 앞서 있지만 최근 10경기로 확대하면 2승 6무 2패로 팽팽하게 맞선다.

전북현대는 지난 8월 24일 포항전을 끝으로 무패 행진을 마감했으나 오히려 부담감을 덜어내고 팀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모양새다.

포항전 이후 강원과의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 울산과의 K리그1 경기까지 모두 승리한 전북현대는 연이은 주중 경기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인 열세를 극복하며 팀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평가다.

지난 8월 20일 코리아컵 준결승 1차전

이후 약 3주 만에 홈경기를 치르는 만큼 팬들의 성원도 뜨겁다.

11일 오전 기준 시즌티켓을 포함한 사전 예매만 2만 3천여 매를 돌파해 이날 경기에 2만 5천여 명의 관중이 예상된다.

2만 5천여 명의 전북현대 팬들이 전 주성을 찾는 만큼 전주시도 교통편의를 위해 나섰다.

13일 경기에는 친환경 수소버스인 ‘1994 버스’를 15대로 확대하고 전주성인근 지역인 혁신·만성지구 방면을 운행하는 전기마을버스도 2대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은 전북현대 파트너 지자체인 진

안군의 ‘파트너 데이’로 지정됐다.

진안군은 동축 광장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진안군의 특산품인 홍삼 음료 시음과 젤리 시식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팬들에게 제공한다.

이날은 경기에 앞서 올 시즌 여름을 달군 선수들의 다양한 시상식이 예정돼 있다.

7월 ‘이달의 세이브’와 ‘이달의 골 세리머니’에 송범근과 티아고가 각각 선정됐으며 국가대표 김진규는 지난 8월 16일 대구와의 경기에서 K리그1 100경기 출전을 달성해 이날 기념 시상식이 열린다.

/장정철 기자

전북교육청, ‘상호 존중의 날’ 갑질 근절 선도

갑질 없는 조직문화 정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2층 강당에서 소통과 존중으로 함께하는 ‘2025.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했다.

이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에 근거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과 상호 존중·배려의 문화 확산을 목표로 개최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갑질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령을 제정하고,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년 2학기 첫 번째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교육청 전 직원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부서장과 직원 대표가 함께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 조직문화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존중과 배려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또 ‘부서별 갑질 근절 다짐 릴레이’, 전 직원이 작성한 ‘상호 존중 다짐 엽서 게시’ 등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았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상호 존중의 날’을 통해 갑질과 괴롭힘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존중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바다를 지키는 4가지 실천운동

스킨스쿠버 활동과 함께
‘수중쓰레기 수거하기’



해변을 산책하며 쓰레기 줍기
(비치코밍, beachcombing)



달리기하면서 쓰레기 줍기
(플로깅, plogging)



바다낚시를 즐긴 후
쓰레기 되가져가기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 선정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도영, 이하‘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2025년도 전국 지역자활센터 사업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해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는 전국 지역자활센터 250개소를 대상으로 자활사업 역량 제고와 성과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센터는 참여자 자활역량증진·운영 전문성 등 16개 지표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진행되는 평가를 통해 전북 유일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지역 특색에 맞는 자활기업육성 △민·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한 자활 네트워크 구축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앞장선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다. 현재 10개 사업에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경제적·정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도영 군산한마음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주민들의 따과 노력이 빚어낸 성과이자, 함께하는 지역사회의 협력 덕분으로 참여주민들이 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 19~21일 지스코서 개최

군산시가 주최하고 지스코(GSCO)가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는 서해안권 대표 캠핑·레저 박람회 ‘2025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이하 ‘지스코(GSCO)’)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완성차량, 캠핑카, 캠핑용품, 캠핑푸드 등 캠핑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캠핑 관련 신제품과 아이디어 상품을 선보이는 ‘캠핑 마켓’도 작년 17坪에서 올해 40坪으로 대폭 확대됐다. 간편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캠핑 상품들이 선보이는 만큼 관람객들의 관심도 한층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현현 일지리경제과장은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는 단순한 캠핑 전시를 넘어 지역의 관광·문화·산업이 어우러지는 복합 페스티벌로 자리잡았다”라며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소상공인·기업 동참

정읍시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에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이 힘을 보탰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시민이 힘이다! 정읍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인구사랑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철범), ㈜쓰리에이씨(대표 채성호·고정곤), 경남물산㈜(대표 김삼곤)이 동참해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인구사랑 범시민운동은 △주민 전입(정읍애 주소갖기) △사계절 체류인구 확대(정읍애 머무르기)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정읍애 함께살기)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인구 10만 명 이상 유지와 생활인구 월 5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읍시는 전입자에게 세대원 1인당 15만원의 전입지원금, 대학생 연 50만원 거주비 지원, 청년 이사비용 최대 50만원 지원을 비롯해 출생 축하금, 59개월 이하 영유아 육아수당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인구는 도시 성장과 활력 유지의 핵심 기반”이라며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과제인 만큼, 시민과 기관·단체가 적극 참여해 전입 확대와 생활인구 증가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서해안 철도 국정과제 실현 힘 모아

군산·부안·고창 등 5개 시군군산~목포 국가철도망 구축공동대응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5개 시군 협의회가 11일 영광군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해안철도가 경유하는 군산시·부안군·고창군·영광군·함평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추진현황 보고와 함께 향후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서해안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건설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서해안철도가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

라가 될 것이라는 점에 참석자들 모두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 형성과 중앙정부 설득 전략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은 “군산에서 목포까지 서해안철도가 건설된다면 서해선~장항선~새만금선~서해안선으로 이어지는 군산 중심의 서해안 남북축 철도가 완성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도균형발전과 진정한 서해안 시대 개막을 앞당길 마지막 열쇠로서 그동안 지체됐던 서해안 철도가 최우선 순위에 올라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5개 시군이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정례적인 간담회와 공동 용역 등을 통해 서해안철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리나



서해안철도 노선도 <사진=군산시>

갈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다이어움 나눔공간’, 이전 새출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공동체 회복·복지 거점

익산 다이어움 나눔공간이 새로운 보급자리로 옮겨 시민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나간다.

익산시는 11일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와 ‘다이어움 나눔공간’ 이전 개소식을 열고, 복지안전망 강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현율 익산시장을 비롯해 후원 기업과 단체 관계자, 삼동회 산하 기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이전을 축하했다.

이번 이전을 통해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는 서동로4길 37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더욱 쾌적한 공간에서 물품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는 기업·단체·시민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과 생필품을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복지 거점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다.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이 익산시로부터



익산시는 11일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와 ‘다이어움 나눔공간’ 이전 개소식을 열고, 복지안전망 강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사진=익산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 내에 있는 다이어움 나눔공간은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후원 물품을 무료로 제공해 생계 안정을 돕고 있다.

시는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확대 △청소녀·아동 복지 연계 등을 지속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

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행복나눔마켓·뱅크는 단순히 물품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이웃사랑과 공동체 회복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힘을 모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제3기 인구정책 시민참여단’ 18명 위촉

청년 유출 등 인구문제 분석·해결 방안 모색

반려동물 헬스케어 상용화 플랫폼 개발, 국가바이오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 등 정읍의 미래 청사진을 그릴 핵심 사업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읍시는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이학수 시장 주재로 ‘2026년 주요정책 발굴 고고회’를 갖고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보고회는 △주요 예산 사업 77건 △부서별 신규 시책 185건 △인구시책 44건 △공약사업 91건의 주요 시

책을 공유·검점하는 자리였다. 특히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 문제점·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토론방식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논의된 주요 시책으로는 △반려동물 헬스케어 상용화 플랫폼 개발 △국가바이오자원 산업화 허브 구축 △무수성서원 유교수련원 운영 △연지동 행정복합문화타운 건립 △내장초 치유관광지 기반 조성 △환경교육도시 공모 △서남권 광역 생활지원회수센터 시설 개선 △수성~구룡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지역활력타운 조성 △재해예방 감곡천(통성지구) 지방하천 정비 △수성 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스마트 과수원 특

화단지 조성 등이 제시돼 정읍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이학수 시장은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계속 사업도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 절감된 예산을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시책에 투자해야 한다”며 “보고된 사업들이 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추진 재원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선정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숙련기능인력 외국인 정착지원금 지원

지역 생활인구 확대 인력난 완화 기대

익산시는 숙련기능인력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또는 E-7-4R)로 전환하고, 익산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등록 외국인이다. 정착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단기 체류 외국인의 장기 정착을 유도해 생활인구를 늘리고, 아울러 숙련 인력이 지역에 머물면서 기업의 인력난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역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전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

인 채용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정보를 적극 알리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숙련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촉진해 인력난 해소와 생활 인구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착지원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치유형 반려동물 관광도시 도약

관광 활성화 방안 등 모색

익산시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치유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11일 달빛소리수목원에서 ‘반려동물 친화관광 공감포럼’을 열고, 정책 비전과 발전 전략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친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은 ‘2025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관계자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5개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학계·업계 전문가, 시민이 함께했다.

이날 포럼에서 익산시는 ‘펫프렌드(Pet Friend) 익산’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콘텐츠와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시하고, 반려동물 치유형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반려동물 친화관광 시설 조성 권고안(가이드라인)과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지자체 정책 수립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여진 기초발처에서 정민섭 경제대 교수는 “반려동물과 함께 머무는 도시, 삶을 치유하는 관광”을 주제로 반려동물 웰니스 관광의 가치와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펫프렌드 익산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친구처럼 함께 어울리며 즐기는 도시를 의미한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적 관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가정법원·정읍지원 설치 촉구

정읍시가 전주가정법원과 정읍지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시는 서남권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 시장실에서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전주가정법원 본원과 정읍·군산·남원 지원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간담회에는 이학수 시장, 김학수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호 전주가정법원설치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

석해 법률안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정읍지원 설치와 고창·부안 등 서남권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 서비스를 보장할 핵심 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에 가정법원 지원이 들어서면 서남권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이고 편리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정읍시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설치 추진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국철인3종선수권대회’, 익산서 막 올려

익산에서 전국 철인3종 선수들이 기다려온 스포츠 축제가 막을 올린다.

익산시는 ‘제25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철인3종선수권대회’가 오후면 익산국제철인3종경기장에서 오는 14일까지 사흘간 치러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철인3종협회가 주관한다. 엘리트 선수와 U23, 초·중·고등부, 동호인 선수 등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12일 엘리트, U23 남·녀 부문은 시작으로 13일에는 초·중·고등부, 14일에는 동호인부 경기가 이어진다.

사이클 경기가 열리는 오늘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 30분까지,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 10분까지는 골프장 입구 - 옹포삼거리 - 마리더스타 - 어래터널 구간에서 교통이 통제된다.

시는 이번 대회가 철인3종 종목의 저변 확대와 선수 기량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옹포면의 아름다운 자연과 우수한 기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이 지역에 감동과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교통통제 하 불가피한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신소득 과수 ‘포포’ 재배 성공

정읍시가 기능성 과수 ‘포포’ 재배에 성공하며 온대성 특용과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포포는 북미 동부 원산의 과수로 영하 20℃ 이하의 추위에도 견디는 강한 내한성을 지녀, 충청·전북·경북 내륙 등 국내 온대 지역에서도 친환경 노지 재배가 가능하다.

포포 열매는 9~10월 수확 시기에 크리미한 식감과 달콤한 맛을 자랑한다. 망고·바나나·멜론을 합친 듯한 이국적 풍미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흔히 이름이 비슷한 열대과수 파파야와 혼동되지만, 파파야와 달리 시설재

배 없이도 한국 기후에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 기후변화 시대의 대체 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시 포포 재배 농가는 현재 5000평 규모의 재배지에 약 2500그루를 식재해 연간 5톤 이상의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 수확된 열매는 온라인에서 kg당 2만5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신선함과 맛을 제공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포포가 블루베리, 태추단감에 이어 정읍의 새로운 고소득 과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순창군,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 ‘순항’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 투입 청년정착안정적정주조성박차 15%공정내년상반기완공목표

순창군이 추진 중인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총 7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기숙사는 순창읍 순화리 663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부지면적 1,830㎡에 지상 4층, 연면적 1,501㎡ 규모로 건립된다.

총 40실을 갖춘 기숙사는 앞으로 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2023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토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했고, 올해 6월 공사에 착수했다. 현재 공정률은 15%로,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순창군의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청년 정착과 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순창군>

군은 기숙사 건립 과정에서 대전·서천 등 타 지역 기숙사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합리적인 임대 조건과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과 월세 수준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특히 기숙사 조성사업은 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앞서 진행된 수요조사에서 656명의 근로자 중 91명이 기숙사 입주를 희망한 바 있으며, 이는 지역 기업의 인력

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이끄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기숙사 건립은 단순히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지역 기업과 청년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자리 잡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문화행사

5일간 1,869명 어르신과 공연·식사 함께하며 화합

남원시니어클럽(관장 김현성)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남원 참조은캐딩컨벤션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노인 1,869명을 대상으로 ‘행복한동행’ 문화활동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사기 진작과 참

여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자 노민의 유쾌한 진행 속에 뷔페 형식의 점심 식사가 제공됐으며, 흥겨운 타악 공연팀 ‘아귀’의 공연이 무대를 채워 큰 호응을 얻었다.

남원시니어클럽은 올해 37개의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운영해 지역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생산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유네스코 등재기념 발효문화 관광포럼 개최

3일간 5개국서 150여명 참가 글로벌 관광산업 확장 전략 논의

(재)순창발효관광재단이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북 순창군 일원에서 ‘2025 순창 발효문화 국제관광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한국 장 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기념해 마련된 행사로, 발효문화를 중심으로 국제 관광 전략을 모색하고, 순창을 글로벌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포럼은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관광콘텐츠학회 및 한국호텔리조트학회가 주관한다. 또한, 이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유망 MICE 행사 육성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는 만큼, 학술적 논의와 산업적 적용을 아우르는 실질적 성과가 기대된다.

행사는 총 3일간 진행되며, △9월 12일에는 웰랜드 대강당에서 개막식 및 기조강연이 진행되고, △13일에는 ‘발효문화·인류문화유산·관광’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 △14일에는 강천산 일원을 중심으로 한 순창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김현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발효문화 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며, 한국을 포함한 5개국(한국, 베트남, 러시아, 몽골, 중국)에서 약 15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 중 50여명은 해외 발효·관광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국내외 학문 및 산업계 간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발효관광재단 관계자는 “순창 발효문화 관광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 발효문화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농기센터는 신기술 실증연구 최종평가회를 내달까지 총 20개소에서 진행한다.

남원시, 신소득작목 및 신기술 발굴 현장평가회

흑염소 폐사율 감소 실증연구 과실 기후위기대응 등 현장평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2025년도 신소득작목 및 신기술 실증연구사업 최종결과 및 현장평가회를 9월부터 10월까지 총 20개소에서 실시한다.

사업명으로 흑염소 폐사율 감소를 위한 실증연구, 복숭아 기후변화 대응 안정생산 실증연구, 온습도 조절 병난방기 활용으로 딸기 육묘온실 적정 유지, 흉과 예방을 위한 포도 수분관리 실증연구, 배 과원 여름철 고온기 관리 실증연구 확대 등 총 20개 사업으로 농업인과 지도사의 협업 구축으

로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신소득작목 및 신기술 발굴 실증연구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돼 2024년까지 총 57건이 수행됐다. 추진 성과로 과수 병해방지 열방샷판 실증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으로 확대됐고, 논두렁 물막이판을 이용한 논물 유실방지 및 잡초방제 실증연구는 읍·면 특화사업으로 확대돼 농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했다.

최경석 남원시장은 “실증연구과제는 보조사업의 밑거름이 되고 고난도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며, 신소득작목 및 신기술 실증으로 농업발전에 커다란 기초가 되는 사례로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딸기 꽃눈분화 교육…농가 소득 높인다

꽃눈분화 검경·정식 적기 지도 조기 수확·수확량 증가 효과

완주군이 오는 19일까지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꽃눈분화 검경 및 적기 정식 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검경은 완주군농업기술센터 1층 진단실(예찰실)에서 진행되며, 딸기 꽃눈분화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적절한 정식시기를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적기에 정식할 경우, 조기 수확이 가능해지고 수확량이 최대 20%까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딸기 꽃눈분화는 딸기 생육에 매우 중요한 단계로, 적기 정식 여부에 따라 농가의 수확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완주군농업기술센터는 과학적인 검경과 맞춤형 지도 서비스를 제공해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최창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검경 기간 동안 많은 딸기 농가가 참여해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식 시기 진단을 받아 보길 바란다”며 “농가의 성공적인 딸기 재배와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상관 도시재생 거점 ‘새원복합어울림센터’ 준공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 북카페·커뮤니티 공간 등 갖춰

완주군이 11일 상관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새원복합어울림센터’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기관단체장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새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상관면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 개선, 골목길 정비, 거점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의 생활환경을 한 단계 높였다.

이번에 준공된 ‘새원복합어울림센터’는 북카페, 커뮤니티 공간, 동아리방, 작은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복합



완주군은 ‘새원복합어울림센터’의 준공식을 11일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군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사진=완주군>

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군은 이 시설이 주민들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새원복합어울림

센터는 도시재생의 중심이자 상관면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국제드론제전 준비 총력…추진상황 점검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전 세대 체험 프로그램 강화

남원시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0일 시청에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남원시장 및 각 부서장들이 참석해 행사 추진 과정에서 각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남은 기간 동안 필요한 협업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된다. 주요 행사로는 DFL 국제 드론레이싱 대회, 국토부 장관배 드론레이싱 대회, 전시 컨퍼런스, 드론 공연 및 체험 페스티벌, 글로벌 푸드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특히 올해는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드론·로봇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됐고,

어린이를 위한 핑크퐁 팝업 놀이터, 다문화 푸드존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및 먹거리 축제가 결합된 글로벌 드론 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교통, 안전, 홍보, 시설, 행사 운영 등 세부 분야별 상황이 공유됐으며, 부서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축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의지를 다졌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운주면 재해복구 신속 대책 마련 촉구

김재천 부의장, 시공업체와 간담 하천 점검·집행부 협의 강화방침

완주군 운주면 하천 재해복구의 신속한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11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지연 문제와 관련해 시공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책 마련을 강구토록 했다.

간담회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운주 하천 재해복구사업 감리단장, 장선천·구룡천·괴목동천 현장소장 등 시공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공사 지연의 원인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완주군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며 총 50억 원 이상 규모의 복구공사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 지연, 지장물·토지 보상 문제, 설계와 현장 불일치, 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시공업체 관계자들은 “지장물·토지 보상 지연과 현장 조건 문제로 공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또한 자재 수급 문제와 작업 환경 악화도 복구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재천 부의장은 “재난복

구사업은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진단과 속도감 있는 복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지장물 및 토지 보상 문제와 설계 현황 불일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행정과 시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공사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군민 피해와 불안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을 점검하고,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재난지역 복구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군민이 하루빨리 안심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감시 역할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고산면, 홀몸 전입 어르신 맞춤형 복지 신속 지원

완주군 고산면이 최근 관내로 전입한 어르신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노인일자리 연계, 생활필수품 지원, 주거안전시설 개선 등 종합적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11일 고산면에 따르면 해당 어르신은 최근 홀로 이사를 와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환경 문제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에 고산면 맞춤형복지팀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며 도움을 호소했다.

어르신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변이 낯설고 아는 사람이 없어 막막해 일 자리를 찾기 위해 면사무소를 방문했다”며 “집은 구했지만 살림살이가 없어 생활이 불편하고, 특히 2층에 위치한 집의 가파른 계단이 두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에 고산면 맞춤형복지팀은 가정방문을 통해 상황을 확인한 뒤 신속하게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 노인일자리 연계, 생활필수품 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를 통한 안전손잡이 설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을 낳고자 지원, 공동도금회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 등을 추진했다.

유지숙 고산면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통합돌봄 노인일자리 확대 모색…선진지 견학

완주군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연계형 노인일자리 벤치마킹을 위해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전주의료복지사회협)’을 방문했다.

최근 실시된 벤치마킹에는 완주군청 경로장애인교, 완주시니어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으며, 교육은 전주의료복지사회 고선미 전무이사가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 연계형 노인일자리 운영 사례 △지역 내 통합돌봄 서비스 운영 방식 △마음돌봄·안심생활동행지원 등 건강·돌봄 특화 서비스 운영 경험을 공유받았다.

군은 올해 사회적협동조합 양지뜰이 ‘시니어 건강지킴이’ 사업단을 운영했으며, 내년에는 규모와 대상을 확대해 노인의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일자리 모델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숙 경로장애인교장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선진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6년 법 시행에 맞춰 완주형 통합돌봄-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든든한 노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보건의료원, 비대면 심뇌혈관예방관리 참여자 모집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20~40대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 채움’ 비대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으며, 생활습관 개선과 정기적인 건강관리 실천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9대 심뇌혈관 예방수칙 영상 시청 △혈압·혈당 측정 인증 △운동 사진 인증(걷기, 달리기, 실내 스포츠 등)이 있으며, 모든 과정을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내열 유리물병이 제공된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이며, 프로그램은 9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네이버 밴드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젊은 층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제2회 마이산 가을꽃 축제, 9월 20일~21일까지

진안군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에 가을을 알리는 코스모스가 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진안군은 매년 계절별로 해바라기, 메밀꽃, 청보리 등 다양한 경관 작물을 심어 오고 있는데 마이산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경관 덕분에 사진 촬영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주변에는 가을꽃뿐 아니라 반월재 저수지와 원예식물관, 도시숲 등이 조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산책하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에 오는 20일~2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는 ‘마이산 가을꽃 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큰 성공을 거둬 올해 2회째로 열린다.

이번 축제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농산물판매, 먹거리 판매장이 마련돼 더 많은 관광객들이 진안을 찾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치매 조기 검진 실시

임실군이 지난 6월부터 9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노인 공익 활동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3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임실군 치매안심센터와 임실군 시니어클럽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인지 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다. 치매 검진은 △선별검사 △진단검사 △각별검사 3단계로 이루어진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정상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 교실에 참여하게 되며, 인지 저하 및 경도인지장애가 확인된 어르신들은 인지 강화 교실 참여 및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게 된다.

또한,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에게는 치매 치료관리비 및 조호 물품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농민운동가이경해 열사 제22주기 추모식 거행

장수군은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관으로 11일 장수읍 한국농업연수원에서 장수 출신 농민운동가 이경해 열사의 22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이경해 열사의 유가족을 비롯해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장, 유관기관 단체장과 농업경영인연합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열사의 뜻을 기렸다.

행사는 추모사를 시작으로 추모시 낭송, 헌화, 추모 걷기, 묘역 참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농업과 농민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이경해 열사는 장수군 출신으로 1974년 서울농업대학교를 졸업한 뒤 평생을 농업인의 길을 걸으며 1989년에는 전국농어인후계자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최훈식 군수는 “오늘 우리는 농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故 이경해 열사의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있다”며 “열사께서 남기신 정신을 이어받아 농업인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착지만 강한 부자농촌 장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추석 맞이 장수물 할인 이벤트

전 품목 25% 할인 쿠폰 제공 최대 40% 혜택

장수군은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 군 직영 온라인 농특산물 쇼핑몰 ‘장수물’에서 군민과 소비자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2일부터 ‘추석맞이 이쁜(얼리버드) 할인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장수물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 품목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25%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회원별 최대 5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류 장수사랑상품권을 장수물 포인트로 전환해 결제할 경우 최대 40%까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 알뜰한 추석 준비가 가능하다.

또한 추석 선물로 인기가 높은 장수군 대표 농산물 홍로 사과는 9월에 수확이 시작됐으며 가정용 3.5kg 기준으로 기본 25% 할인 적용 시 16,4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대추, 제피, 마늘, 미니오이 등 다양한 농산물이 새롭게 입점되었고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장수한우 상품도 다채롭게 구성해 준비했다.

최훈식 군수는 “추석을 맞이해 장수군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주말 손짓

낮에는 물벼락 페스티벌 밤에는 빛의 향연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중반을 넘어서며 열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공연과 체험, 즐길 거리가 금·토·일 손님들을 손짓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도 ‘반딧불이와 함께 하는 생태탐험’을 비롯해 ‘남대천 생명플러스’와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디별 소풍’ 등의 생태환경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남대천 사람의 다리 위 ‘물벼락 페스티벌’은 13일과 14일 2회만을 남겨놓고 있다.

무주가 태권도 성지임을 확인시켜 줄 전주대 싸울아비팀의 ‘태권도 시범 공연(9. 12.~14.)’과 헌터스 팀의 ‘태권도 야간 상설공연(9. 12.~13.)’도 축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공연도 다채롭다. ‘무주인 예술제’, ‘반딧불이 가요제’, ‘학생 연극제(무주중, 무풍초, 푸른꿈고)’ 등 무주군민들이 주인공인 무대가 지난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산의실 솟대 세우기’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사진=무주군>

와 ‘무주농악보존회 공연’에 이어 이번 주말에 펼쳐질 ‘부남뱃소배물이긋놀이(9. 12.)’와 ‘낙화놀이(9. 13)’ 등의 전통 놀이는 무주다움의 진수를 확인하기에 제격이다. ‘조선왕조실록 이안행렬(9. 13.)’과 ‘포쇄의식(9. 14.)’ 재연 행사도 마련된다.

또한 매일 밤 ‘가드너 드림 쇼와 함께 하는 반디 EDM’과 전통공예촌 앞 ‘와

인바 버스킹’ 무대가 군민들의 일상 속에 흥을 불어넣고 있으며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했던 남대천 ‘반디 빛의 향연’도 13일 다시 관객들을 찾는다. 축제 기간 방문객들이 직접 건강과 행복, 성취에 대한 바람을 적었던 소원지는 낙화봉에 감아 ‘낙화놀이’에서 활짝 꽃 피울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수치유 관광도시 중심지로 도약 준비

케이워터운영관리국회서 ‘물문화 포럼’ 개최

진안군(군수 전춘성)은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물, 문화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물문화 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물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조명하고, 물을 매개로 한 치유·관광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케이워터운영관리㈜(사장 우달식)와 한국물포럼(총재 박결호)이 주관했으며 진안군과 케이워터운영관리(주), 안호영 국회의원과실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지자체, 학계, 관련 기관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물 문화에 대한 학술 발표와 정책 제언과 더불어 진안군의 수치유 관광도시 비전 선포식이 함께 열렸다.

개회식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박결호 한국물포럼 총재, 안호영 국회의원, 동창욱 진안군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진안군



의 ‘수(水)·치유(治癒) 도시’ 선포를 축하했다.

주제발표는 △물문화와 정책과 확산 전략(강형식 본부장, 한국환경연구원) △친수관광 사례로 보는 한국의 물문화(강현수 팀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물문화 거점시설과 확산전략(송재민 교수, 서울대)이 발표됐다.

이어 △수치유 모델 제시 및 정책 확산 전략(박민근 교수, 신한대) △크나이프를 활용한 지역치유산업 발전 방안

(조록한 치유산업연구원장, 한국크나이프협회)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전춘성 진안군수의 비전 선포문 낭독을 시작으로 ‘진안군 수치유 관광 비전 선포식’이 열려, 진안군은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치유관광 브랜드 이미지를 확립하고, 수치유 법제화 건의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치유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종사자활동 격려의 장

무주군은 11일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나춘균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단체 임직원, 관련 공무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무주군민합창단의 축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이상신 씨와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천소연 씨가 이웃사랑 실천으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로로 무주군수 표창을 받았다.

무주노인종합복지관 김상철 씨는 무주군의회 의장상을,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남경훈 주무관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을 수상했다. 무주지역자활센터 김래용 씨와 무주군설천면행정복지센터 황윤희 맞춤형복지팀장, 무주지역자활센터 곽계문 씨, 반디누리작업장 김태경 씨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 받았다.

이외에도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송수산 씨가 무주진안장수 사회복지자협의회장상을, 무주노인종합복지관 김미정 씨,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혜영 씨, 평화요양원 박소연 씨가 무주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 수상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LG사이언스파크 현장 견학

기술중심 지역 전략설계 모색

진안군은 11일,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부군수, 국·소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이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기술 중심의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진안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방문단은 LG사이언스파크의 첨단 연구 시설과 기술 개발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동향을 살펴봤다. 특히, LG사이언스파크가 추진 중인 기술 융합 사례와 혁신적인 연구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지역 현안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군은 이번 견학을 통해 지식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업, 행정 효율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첨단 기술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

무주군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무허가·미등록 축사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가축전염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 수준 향상, △환경오염 예방,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으로 해당 농가에서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신고하면 된다.

축종과 두수, 사육 면적 등의 이행계획을 신고하면 되는데 자진해서 신고한 경우는 6개월간 처분이 유예된다. 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신고한 농가라도 이행계획을 불이행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료

임실군이 지난 10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임실’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성 평등한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심 민 군수를 비롯해 군의회 의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공

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양성평등 강연, 밴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임실군여성단체협의회 황정자 회장 등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가정, 직장,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정읍 김병수 세무사,
15번째 장학금 1백만원 기탁



정읍 김병수세무회계사
무소 김병수 대표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하며 귀감이
되고 있다.

정읍시민장학재단은 지난
9일 김 대표가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대표는 “지역에서 함께 성장해 온 만큼 학
생들이 마음껏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수 대표는 재단의 감사로 활동하면서 매
년 세무확인 수수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탁
해 왔다. 이번 기탁을 포함해 2007년부터 총
15회에 걸쳐 누적 1346만원을 정읍시민장학재
단에 전달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청년봉사단 ‘위아원’, 헌혈 생명 나눔 앞장서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

신천지예수교회 청년봉사단 ‘위
아원(We Are One)’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집중 헌혈 캠페인 시
작 한 달여 만에 7,500명이 실제
헌혈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단기간에 이뤄진 대규모 참여로
혈액 수급난을 겪는 의료 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7월 27일 시
작됐으며, 8월 31일 기준으로 총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
데 7,500여 명이 실제 헌혈에 성공
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 청년 헌혈
운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으로 대체 물질이 없고 인공적으
로 만들 수도 없다. 또한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지속적인 헌혈 참여
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
계 각국은 혈액의 상업적 유통을
금지하고, 자발적 헌혈을 장려하
고 있다.

위아원 관계자는 “헌혈은 대체
할 수 없는 생명 나눔”이라며 “캠페인이 오는 10월 18일까지 이어
지는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
해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 청년봉사단 위아원(We Are One)이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집중 헌혈 캠페인
이 시작 한 달여 만에 7500명이 실제 헌혈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위아원>



부안 동진면 출신 김나영씨,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6일 ‘동진면민의 날’ 행사장
에서 동진면 산월마을 김만곤 님의 자녀인 김
나영 님이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
했다고 밝혔다.

김나영 님은 현재 타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
사로 재직 중이며,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으
나 부친 김만곤 님이 대신 기탁식에 참석해
지역을 향한 따뜻한 뜻을 전했다.

이번 기부는 고향을 향한 애정과 응원의 마
음을 담아 면민의 날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더한 순간으로 기억됐다. 특히 이날 행사는 면
민과 출향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성황리에 개
최되었으며, 김나영 님의 참여는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남겼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내
고향을 응원하고 지키는 뜻깊은 실천”이라며
“이처럼 타지에 계신 분들의 꾸준한 참여는
고향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전주 전당마을에 후원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본부
장 엄진영,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11일(목) 1
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전주 전당마을을 방문
해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하고 후원품 전달식
을 진행했다.

이날 건협 전북지부는 경로당에 필요한 후원
품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마을 생활
을 응원했다. 더불어, 전당마을을 발전에 함께하
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했다.

건협 전북지부 엄진영 본부장은 “1사1촌 자
매결연을 통해 맺은 소중한 인연과 함께 사랑
과 나눔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어 매우 뜻깊
다”며, “앞으로도 전당마을과의 교류를 지속하
여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익산 금마면 새마을부녀회,
반찬나눔으로 이웃 사랑

익산시 금마면 새마을부녀회는 11일 지역 내
취약계층 고령자를 위해 반찬 나눔 봉사활동
을 진행했다.

이날 부녀회원 36명이 참여해 돼지불고기
와 김치 등 다양한 반찬을 정성껏 조리했다. 이어
취약계층 고령자 72가정을 방문해 반찬을 전
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이번 봉사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사회복지 유공 표창

지역복지 발전 공로 인정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지난
10일 완주군향토예술평화회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회복지 유공 표창을 수상
했다. 이번 행사는 완주군사회복지
협의회가 주관해, 지역사회 복지 증
진에 헌신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
고 나눔과 봉사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부건 의원은 평소 사회복지사
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의
정활동과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 복

지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취약계층·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언과
제도 개선 △군민 참여형 나눔 문화
확산 △사회복지 기관·단체와의 협
력 강화 등에서 성과를 거두며 완주
군 복지정책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복지와 환경을 연계한 포용
적 지역공동체 조성에도 힘써, 미래
세대까지 고려한 지속 가능한 복지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가 이번 수
상으로 이어졌다.

/완주=김명곤 기자



K-water 나눔복지재단, 이동세탁서비스 운영

K-water 나눔복지재단이 임실
군 운암면 상운마을에서 이동세탁
서비스 ‘사랑샘터’를 운영하며 지
역 주민들의 생활 복지 향상에 앞
장서고 있다.

사랑샘터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갖춘 이동 세탁 차량이 마을을 직
접 찾아가, 세탁이 어려운 취약계
층과 고령자들에게 편리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먼 거리 이동 없이도
깨끗한 의류와 침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K-water 나눔복지재단 관계자
는 “상운마을 주민분들의 생활 편
의를 돕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
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추
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삼례농협, 완주지역자활센터에 실버카 25대 전달

완주 삼례농협이 완주지역자활
센터에 어르신들의 보행 편의를
위한 실버카 25대를 전달하며 지
역사회에 온기를 더했다.

지난 10일 완주지역자활센터 교
육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강신학
삼례농협 조합장과 김진왕 완주지
역자활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
했다.

전달된 실버카는 보행에 어려움

이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지
원될 예정이다.

강신학 삼례농협 조합장은 “이
번 나눔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
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든
든한 버팀목이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삼례농협이 되도록 최선
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청소년문화의집,
레고 조립 프로그램 ‘큰 호응’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최근 아동·청소년
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레
고야 놀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
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직접 레고 블록
을 조립하며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
록 기획됐으며, 소근육 발달과 두뇌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
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프로그램 소개 △나만의
레고 작품 만들기 △작품 발표와 소감 나누기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또래 친구들과 협
력하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표
현력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레
고를 활용한 체험 활동이 아이들에게 창의력
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
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
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一事一言〉



단 한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젊은이들(2)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재의 행복도와 미래에 대한 기대이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돈을 곧 행복으로 보는 물질주의적 행복론을 믿고 있다. 그래서 전 인생을 돈을 버는데 갈아넣지만 (실사 돈을 버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행복은 더 멀어져만 간다. 한국인들이 행복을 돈에서 찾게 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공동체의 해체로 인한 인간관계 약화다.

한국에서는 개인 간 생존경쟁과 서열경쟁이 전 사회에 일반화된 결과 가족관계도 약화되었다.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한국을 포함하는 17개 선진국의 성인 1만 9000명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가 '가족'을 1위로 꼽았지만, 오직 한국만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았다. 이런 결과는 한국의 가족 내 인간관계가 크게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개인 간 생존경쟁과 서열경쟁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 한국 부모들은 자식이 경쟁에서 낙오할 것을 두려워하여 어릴 때부터 자녀에 대한 사랑을 핑계로 공부를 강요 - 이것은 본질적으로 돈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강요하는 것 - 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자식을 포함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들의 사랑은 가짜 사랑인 조건부 사랑으로 변질된다.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를 떠안

게 되고 심한 경우 부모를 미워한다. 한국에서 부모-자식 관계가 양호한 가정이 빠른 속도로 줄어든 것은 한국 사회가 부모들로부터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정신건강을 박탈해서다.

가정에서 생활하고 성장할 때조차 행복하지 않았던 젊은이들은 학교생활을 비롯한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홀로 고립된 채 잔혹한 악육강식의 세상에 맞서는 생존을 위해, 성공을 위해 눈물겨운 전투를 시작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그들이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행복하지 않았고 현재도 행복하지 않은 데다, 미래에도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다면 왜 결혼을 해야 하고 자식을 낳아야 할까? 현재가 행복하지 않은 청년들은 자식을 키울 마음의 여유가 없고 자식이 자기처럼 불행한 삶을 사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들은 자식을 낳지 않음으로써 불행과 고통을 자기 대에서 끊어버리려 할 것이다. 자신의 현재 삶에는 만족한다 하더라도 미래를 비관하는 청년들은 앞으로 더 끔찍해질 세상에서 자식이 태어나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부모로서 자식에게 못할 짓이라고 여길 것이다. 이들은 자식을 사랑하기에 출산을 거부한다.

한국인들이 물질적 풍요나 돈을 최고로 치면서 그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행복은 물론이고 자살과

출산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많은 연구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듯이 행복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개인 간 생존경쟁과 서열경쟁으로 모든 공동체가 붕괴되고 인간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된 결과, 한국인들은 인간관계나 공동체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가능성을 상실했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했다. 그 결과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쾌락을 누리거나 서열상승에 성공해 잘난 체하면서 살겠다는 쾌락주의 행복론과 서열주의 행복론(나르시시즘적 행복론)을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살아간다.

개인적 부를 위해 승자독식의 오징어게임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행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파괴한다. 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지금도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OECD는 한국에서 자살률과 정신질환 환자가 유독 증가하는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김정희 원, 『공정 이후의 세계』, 2022, 창비, 17쪽). 한국인들의 정신건강 악화는 그 규모와 속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다. 2021년에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를 차지했다. 2022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20대 여성의 수가 가장 많다(사단법인 기본사회 편 집위원회, 『기본사회가 꿈꾸는

세상』, 2024, 밀알, 85쪽). 정신건강이 급속히 악화된다는 것은 당연히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과 통한다. (행복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를 참고하라.) 정신건강은 행복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평가되지만 국민의 행복 순위는 2024년 발표에 따르면 세계 50위권이고 OECD국가 중에서 33위로서 최하위권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정신병 유행률과 증가율은 한국인들이 지금과 같은 삶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한국은 결단코 멸망할 것이다. 인간이 병들거나 파괴되면 백악이 무효하기 때문이다. 한국을 멸망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근본적인 개혁이다.<끝>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 설

기업 유치 허상, 정책 전환을 고민하자

민선 8기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기업유치 정책의 성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을 약속했던 화려한 협약이 실제로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민에게는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대대적으로 '장밋빛 희망'을 전했지만, 실제 현실과 현상은 기대와 거리가 멀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체결된 기업 투자협약은 총 210건, 16조 5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 도민의 눈높이에서는 "이제 고향에 공장이 들어서고, 우리 아이들이 일할 일터가 마련되겠구나" 하는 희망이 싹텄을 법하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실제 투자액은 6천399억 원으로 계획 대비 고작 3.9%에 불과했고, 고용 인원도 약속한 1만8천662명 중 756명, 4%에 그쳤다. 이쯤 되면 '성과 부풀리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기대에 부응 도민에게 '희망 고문'만 안겨줬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자원 배분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들 기업에 1천36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눈에 보이는 성과는 초라하다. 예산을 투입한 만큼 지역경제가 되돌려 받은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과 없는 기업유치에 막대한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결국 도민을 기만하는 일이 된다. 보여주기식 성과 경쟁이 아닌 냉정한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물론 기업유치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산업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전북의 현실을 외면한 채 무리한 기업유치에만 매달리는 것은 길이 아니다. 전

북이 가진 강점, 즉 농업과 농촌의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은 귀담아들을 만하다.

실제 사례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남원 운봉의 한 귀농인은 참깨·들깨 가공품으로 연매출 22억 원을 올리고 있고, 완주의 청년 귀농인은 애플망고 재배로 2억 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이들은 거창한 투자 협약서나 보여주기식 행사와는 무관하지만, 전북 농업의 가능성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농업의 6차 산업화, 귀농·귀촌인 지원, 후계농 창업 육성에 행정과 예산이 더해진다면 지역 곳곳에서 '역대 농부'가 탄생하는 것은 꿈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전북의 뿌리 깊은 정체성을 지켜내면서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길이다.

기업유치와 농업 투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지금처럼 기업유치 일변도의 정책 기조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특히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동부권에는 고령자 과수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이 절실하다. 기업만 바라보는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농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전북자치도의 이름값은 기업 유치 건수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역의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미래야말로 진정한 성과다. 이제는 공허한 협약 남발을 멈추고 농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사람이 물러드는 전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전북의 새로운 길이며,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이다.



오늘의시

가을비 / 신경림

젖은 나뭇잎이 날아와 유리창에 달라붙는
간이역에는 첫시간이 돼도 손님이 없다
플라타너스로 가려진 남은 목조 찾집
차 나르는 소녀의 머리칼에서는 풀냄새가 나겠지
오늘 집에 가면 현 난로에 불을 당겨
먼저 따끈한 차 한잔을 마셔야지
빗물에 젖은 유행가 가락을 떠밀며
화물차 언덕을 돌아 뒤통거리며 들어설 제
붉고 푸른 깃발을 흔드는
늙은 역무원 굵은 등에 흠뻑리는 가을비

시인 약력 : 1936년 충주 출생. 동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낯달', '갈대',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한동안 생활 형편이 어려워 동네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하며 끼니를 때웠다. 이후 '원격지', '산유기행', '시제', '농무' 등의 시를 발표했고 시학 해설서인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를 출간하며 작고한 시인들과 생존 시인들을 만나기도 했다. 1973년 만해문학상, 1981년 한국문학작가상을 수상했다. 동국대에서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독자광장

인권, 그리고 그 권리를 지켜주는 '힘 있는 손', 경찰



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공무원과 장애인이 마주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는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인식 부족과 제도적 미비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우리 사회에서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공적 책

임을 지닌 직업이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시민이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동일하게 누릴 자격이 있다.

공권력이 장애인을 대할 때, 우리는 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대응이었는가?", "그 사람의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물론, 경찰의 현장 대응은 매우 긴박하고 복잡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복잡한 상황일수록 더 세심한 감수성과 판단이 필요하다. 공권력의 정당성은 '법의 엄정함'보다는 '인권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은 조직 내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그러한 지식이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특히, 지적·정신적 장애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공감 능력과 실제 대응 시뮬레이션 교육을 병행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들의 경험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 4. 26.(토) 정읍경찰서 청렴동아리 '청솔화'에서는 정읍지역 봉사단체와 협업체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산행' 행사에 참여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서로 협력하며 소통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러한 봉사에 참여한 경찰관

들은 향후 장애인들과의 대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나, 현장에서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는 단지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경찰공무원의 사명과 인권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공권력은 강압에서 나오지 않는다. 약자를 이해하고 보호할 줄 아는 힘에서 진정한 권위가 탄생한다.

장애인의 인권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일 뿐이며, 경찰은 그 권리를 지켜주는 '힘 있는 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읍경찰서 수사와 경사 한아름

간재 전우 초상화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일반회화, 초상화
- 시대 - 조선시대
- 지정일 - 2022년 3월 11일
- 소재지 -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부안청자박물관)

문화재 열전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5. 09. 12 금요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인)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8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북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전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13회 전북 어린이 자연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성료

수상작 소개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상● 부안동초 김보민



●대상● 정읍서초 정우진



●대상● 정읍서초 정연서



◆최우수상◆ 부안동초 김가을



◆최우수상◆ 전주용흥초 주소연



◆최우수상◆ 부안동초 임지아



◆최우수상◆ 정읍한솔초 한리서

대상 수상자

부안동초 김보민·정읍서초 정연서·정우진

전북타임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전북지회는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최한 ‘제13회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지난 9일 성황리에 마쳤다.

201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는 도내 꿈나무들에게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에 대한 인식을 키우기 위한 문예마당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대회로 전환된 이후 6회째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전북도 내 17개 시군에서 어린이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그림 실력을 뽐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 총 270여 명이

참여했고, ‘자연사랑 및 자연보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주제로, △자연환경이 보존된 청정한 전북, △다양한 전북지역 환경보전 이야기 △순수하고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 등을 화폭에 담아냈다.

대상 수상작은 총 80점이며(대상 3명, 최우수상 4명, 특별상 3명, 우수상 20명, 장려상 50명) 대상(전북교육감상 1명, 전북도의회장상 1명, 전북도지사상 1명)의 영광은 부안동초등학교 4학년 김보민 학생(전북도지사상)과 정읍서초등학교 3학년 정연서 학생(전북교육감상), 정읍서초등학교 1학년 정우진 학생(전북도의회장상)에게 돌아갔다.

대상 작품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지 않은 순수하면서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보호를 표현한 것을 높게 평가해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부안동초 1학년 김가

을 학생(전주시장상)과 전주용흥초 3학년 주소연 학생(전주시장상), 부안동초등학교 3학년 임지아 학생(전주시의장상), 정읍한솔초 2학년 한리서 학생(전주시의장상)이 선정됐다.

특별상(국회의원상)은 전주용흥초 4학년 최지우 학생과 정읍동신초 6학년 이선진 학생, 전주용흥초 3학년 최아유 학생이 수상했다.

수상작은 전북미술협회 백승관 회장(심사위원장)과 전북예총 이경로 사무처장 등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문화상품권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자 시상은 학교 내와 참여한 단체,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다.

출품된 모든 작품은 향후 전북타임스 전시회, SNS, 홍보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며, 전북 지역의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총 심사를 맡은 백승관 심사위원장은 “올해 대회는 예년보다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서적 감성이 다수의 작품에 표

현 됐다”며 “여기에 심사위원들은 초등학교로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지 않은 순수하면서 뛰어난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발했다. 작품은 뛰어난지만 초등학생의 범위 내라고 볼 수 없는 인위적인 작품은 탈락했고, 보편적으로 출품작은 매우 우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타임스 최준호 대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도내 어린이들이 자연환경과 보호 문제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며, 보존된 청정한 삶의 터전에서 순수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수상(전북미술협회상 10·전북예총상 10)은 △정읍서초 5학년 김시연 △전주용흥초 3학년 이승민 △이리고현초 6학년 김주은 △전주서신초 1학년 김지안 △정읍수성초 1학년 허신우 △정읍한솔초 1학년 윤지울 △정읍서초 5학년 김연서 △정읍영산초 6학년 권다현 △전주교대부설초 3학년 최라희 △전주용흥초 5학년 정하영 △정읍서초 2학년 이지

을 △정읍정일초 4학년 김소현 △전주인봉초 1학년 조건우 △정읍백안초 1학년 장예린 △정읍서초 1학년 허승혁 △완주이성초 2학년 김시연 △전주아중초 4학년 모지호 △정읍서초 2학년 김시우 △정읍서초 1학년 민서아 △전주인후초 2학년 이건민 등 총 20명이 수상했다.

장려상(전북타임스상)은 △정읍동신초 2학년 김서연 △전주용흥초 1학년 유나원 △전주용흥초 1학년 최재경 △전주용흥초 4학년 양다연 △전주용흥초 6학년 김하린 △임실대리초 3학년 박선우 △전주교대부설초 2학년 김연지 △전주용흥초 3학년 차유주 △정읍한솔초 4학년 전소윤 △정읍한솔초 3학년 지은서 △정읍한솔초 3학년 김선경 △정읍한솔초 2학년 임유은 △정읍한솔초 5학년 남하솔 △정읍한솔초 1학년 최이수 △정읍서초 1학년 이라엘 △정읍서초 1학년 김승정 △정읍서초 3학년 이정원 △정읍서초 4학년 김서연 △정읍서초 4학년 이시현 △정읍서초 5학년 문지원 △정읍서초 4학년

박준수 △정읍서초 5학년 송이슬 △정읍동초 3학년 김시연 △정읍동신초 6학년 김지우 △정읍동신초 4학년 이서준 △정읍동신초 2학년 최빛나 △정읍백안초 5학년 정지아 △전주용흥초 4학년 서진우 △전주효림초 4학년 김채경 △전주대정초 4학년 경민선 △부안동초 4학년 김민경 △완주화산초 4학년 권지훈 △전주인봉초 1학년 문진서 △전주초포초 2학년 전제이 △전주인봉초 5학년 전준영 △부안동초 1학년 김준우 △전주아중초 3학년 이상경 △전주전라초 1학년 이윤실 △전주인후초 4학년 한지우 △전주인후초 1학년 최민재 △전주전라초 1학년 김민규 △전주인봉초 1학년 김별하 △전주동초 1학년 엄지울 △전주인봉초 1학년 김지아 △전주기린초 3학년 최지민 △전주인봉초 3학년 진다은 △전주인봉초 4학년 오한희 △전주양현초 1학년 정수아 △전주동초 1학년 김지안 △전주기린초 6학년 김다은 등 총 50명이 수상했다.

/최성민 기자